

'링' 오르는 대선 주자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재명, 오늘 영상메시지 통해 출마 선언...내일 비전 발표 국힘, 보수진영 여론조사 1위 김문수 전 장관 출마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각 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당 대표를 사퇴한 이 대표는 10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한 뒤 11일에는 국회에서 비전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수 빅4' 누구와 붙어도 50%를 넘어서고 있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흥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퇴입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사퇴로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진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어려움에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찢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또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권한대행을 맡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인물난' 국힘, 한덕수 차출론

韓, 출마 가능성 일축에도 '이재명 대항마' 평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에서는 또 다른 외부 '구원투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c' 글자도 꺼내지 마라"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한덕수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 보수 진영 대권후보들이 이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친연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덕수 출마론이 당내에서 퍼지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한 권한대

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의원과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대처를 잘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도 있어서 의원들 상당수가 한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 전문가"라며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면 한 권한대행만 한 사람이 없고, 두 번의 총리 경험으로 국정 운영도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공직자 이미지라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애초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만큼 야권의 '계엄 책임론' 공세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기 대선의 엄정한 관리 역할을 맡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레이스에서 선수로 뛰는 것은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반대론이 당내에서부터 만만치 않게 나온다.

원내 주요 당직자는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오라고 하면 되겠는가"라며 "반이재명" 전선에 집중해 후보들을 지원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당이 실현 가능성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정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대통령의 총리를 차출하자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며 "(그런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영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의결

미임명 재판관 임기 연장...권한대행, 대통령 몫 임명권 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 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이 분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한덕수 수사중...이완규도 수사 대상"

오동운 공수처장, 법사위 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명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

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민주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정당과 여러 단체는 한 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정당화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게 주된 취지다.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정동 대통령 인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고 이후 후대전화를 교체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